

土 亭 集

上下 二册 1720年刊

任 昌 淳

(泰東古典研究所長)

1. 刊行經緯

本書는 1720年(肅宗 46年)에 慶州府尹 李楨翊이 私費로 慶州에서 간행한 것이다. 內容은 上下로 되어 있는데 上은 土亭 李之菡의 詩文을 모은 것이요, 下는 土亭의 玄孫인 楨翊이 여러 책에서 土亭에 관계되는 記事를 수집하여 엮은 것이다. 卷首에 鄭澮(1648~1736)의 序가 있고 卷末에는 宋時烈(1607~1689), 權尙夏(1641~1721)의 跋에 이어 끝으로 編者自身的 跋을 붙였다. 이 序跋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에 芝湖 李選(1632~1692)이 弘文館에 있을 때에 館中에 所藏된 書籍을 조사하여 土亭에 관한 기록을 수집한 것을 가지고 다시 楨翊이 집안에 전해오는 자료와 참고대조하여 그의 집안인 李楨億, 또 土亭의 外後孫인 趙世煥과 함께 이책을 完成하였다. 처음에는 宋時烈의 序를 얻으려 했던 것인데 1689년 소위 巳巳換局으로 宋이 화를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權尙夏는 그의 跋에서 서술하였다.

2. 李之菡의 人物

原著者인 土亭 李之菡(1517~1578)은 韓山李氏로 牧隱 李穡의 후손이다. 字는 馨仲, 土亭은 그의 號다. 土亭은 우리나라 儒學者가운데에서도 지식의 탁월하며 理想이 높고 世俗의인 勢利에 대하여는 전혀 흥미를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名利에 汲汲한 자들을 극히 賤視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道家나 佛家流와 같이 社會를 忘却하고 자기 일신만을 깨끗이 살리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요. 정말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며 민생 문제에 부심하던 탁월한 학자였다. 그의 학문은 經典과 역사에 통달함은 물론, 天文, 地理, 醫藥, 音律, 算數卜, 筮에 이르기 까지 깊이 들어가 지 얹음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학문을 傳授한 사람이 없고 또 따로 著書를 남긴 것이 없으므로 그의 깊은 학문은 전하지 못하고 다만 불만스러운 현실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모두들 勢利만을 추구하는 것이 가소로웠기 때문에 晦학과 豪放으로 세상을 희롱하고 지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한 奇人으로 보아 넘겼다. 土亭보다 조금 후배였던 栗谷 李珥는 土亭을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사람중의 하나였지만 그도 土亭을 바로 안 것 같지는 않다. 金繼輝가 珥에게 「土亭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이는 그를 諸葛亮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하냐」고 물었을 때 珥는 「土亭이 어떻게 諸葛亮이 될 수 있느냐 그를 물건으로 치다면 奇花異草, 珍禽怪石에 해당하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菽粟布帛은 될 수 없다」 하였다. 이것은 곧 「土亭은 一種의 奇僻한 인물은 될지언정 실용적인 가치는 없다」는 評定이다. 이 말을 들은 土亭은 웃으며 「내가 아무리 菽粟은 못된다 할지라도 鴻年의식량인 도토리정도는 될 터이니 어찌 전년 쓸모 없는 인간이라고야 할 수 있느냐」라고 자인하였다 한다. 학자로서 임진왜란에 활약하다가 義兵將으로 장렬한 殉國을 감행한 重峯 趙憲은 곧 土亭의 제자였다. 그는 土亭에게 제사를 드리는 글에서 선생이 살아 있는 한 국가는 의지할 곳이 있고 백성은 든든한 곳이 있고 道는 붙어있는 곳이 있고 士林은 依歸할 곳이 있었다」고 한 것을 보아도 그의 학문과 덕망을 짐작할 만하며, 그는 결코 李珥의 말대로 단순한 奇花異草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李觀命이 지은 그의 謚狀에 의거하여 그의 行蹟을 略述코자 한다.

土亭은 王族인 毛山守의 딸과 결혼했는데 혼례를 치른 이튿날 밖에 나갔다가 저물녘에 돌아오는데 혼인배에 새로 지어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바지저고리 바람으로 들어왔다. 집안 사람들이 놀라며 어떻게 됐느냐고 묻은 즉 그는 「거지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도 불쌍해서 한 자락씩 떼어 주었는데 아이에게 주고나니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하였다. 형제간에 우애가 극히 두터워서 그의 형인 之蓄을 부모와 같이 받들었고 그의 조카인 山海, 山甫를 위하여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서 모두 1품관에 이르게 되었다. 한 번은 큰 흉년이 들어서 이재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 土亭은 상품을 무역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서 식량을 산데미처럼 쌓아 놓고 모두 빈민들에게 풀어 먹였는데도 그의 처자들은 오�히려 굶주리고 있었다. 또 그는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빈한한 사람과 거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수공업음 가르쳐서 식생활을 해결시키고 그 중에 가장 못나고 무능한 자는 절신을 삼켜하여 그것으로 식량을 공급하게 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과거에 응시할 생각을 갖지 않았으나 그는 평소에 내가 만일 한 고을을 맡아서 다스린다면 빈곤을 타개하여 부유한 생활을 갖게하며 야박한 풍속을 순후하게 만들며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을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였다. 晩年에 朝臣들의 추천에 의하여 抱川縣監이 되어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나라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므로 벼슬을 그만 두었고 다시 牙山縣監이 되었을 때 牙山에서 養魚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官家에서 生魚의 貢納요구가 과중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곧 그 뜻을 메꾸어 버렸다. 그가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 했는가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牙山本官中에 62세로 官숨에서 죽었다. 뒤에 文康公의 諡號를 내렸다.

3. 土亭의 詩文

本書 上卷에 실린 土亭의 著作은 詩(次宋雲長翼弼韻)가 1편, 辭(次陶靖節歸去來辭)가 1편, 說이 大人說, 避知音說, 寡欲說의 3편이 있고 그 밖에 抱川縣監때에 올린 疏 1편과 牙山縣監때에 올린 疏 1편씩이 있을 뿐이다. 詩와 辭에서는 그의 문학의 소양을 알 수 있으며 3편의 說에는 그의 思想面, 곧 精神面의 깊이와 주장을 보여주며 두편의 疏에서는 그의 政治理念과 行政에 대한 基本精神과 탁월한 식견을 볼 수 있다. 전부 열 손가락에도 차지 않는 그의 遺作이지만 이것만으로도 그의 全貌를 짐작할 수 있게 됨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陶淵明의 歸去來辭를 次韻한 詩는 蘇東坡 以下 많은 詩인들의 작품이 전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着想에 있어서 陶淵明의 詩想을 모방했거나, 또는 비슷한 흥내를 낸데 불과하다. 그러나 土亭의 詩는 형식과 韻단 淵明의 것을 빌렸을 뿐 그 構想이나 精神에 있어서는 전연 淵明과는 다른 世界를 전개하였다. 곧 原辭는 官職에서 물러나 田園에 돌아가서 自然을 즐기겠다는 것이 主旨이었으나 土亭은 次元을 달리하여 世俗의인 形式이나 利慾을 떠나서 人間本來의 姿勢로 돌아가야 한다는데에 그 主旨가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쓰인 用語도 原辭를 襲用한 부분이 한군데도 없고 전혀 獨창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大人說과 寡欲說은 비록 100字 정도의 短文이나 그의 人生觀, 修養觀을 說破하였다. 栗谷이 土亭에게 性理學을 공부하라고 권한 즉 그는 「나는 욕심이 많아서 하지 못한다」하였다. 栗谷은 「名利와 허영 같은 것은 先生이 벌써 멀리하고 있는데 또 무슨 욕심이 학문을 방해하느냐」 土亭은 「名利聲色만이 욕심이 아니라, 마음이 지향하는 곳이 天理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人欲이다. 나는 형식에 구속되기를 싫어하고 내멋대로 살고 싶어하는데 이것도 곧 욕심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하였다. 이 대화는 土亭의 호방한 달관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또한 물음에 정신이 사로잡힌 자들이 性理學을 공부하는 것을 표방하며 스스로 세상에 이름을 구하는 것을 조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가 抱川과 牙山에 있을 때에 올린 上疏에서는 民生苦를 구제함에 있어서는 開發經濟策을 실시해야 한다 하면서 金銀과 寶玉을 채굴해야 하며 漁業을 장려하며 鹽業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런것을 國策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하였으며, 軍丁徵發政策이 잘못되어 民間에 큰 폐해가 되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적하였다. 그는 그의 理想을 한가지도 현실에서 살리지 못하였으나 經濟國民의 大計를 갖고 있었던 것은 以上 두편의 疏에서도 그 一端을 알 수 있다. 뒷 사람들이 그를 術數에 능했느니 豫言者, 또는 風水家云云하는 것은 그의 학문이 실제적인 뜻에 바탕을 둔 것을 모르고 부질없이 그를 神秘化시키려는 어리석음에 기인한 것이다. 더구나 근세에 유행하는 소위 「土亭秘訣」을 土亭의 作으로 誤傳함은 치만부당한 일이다.

4. 遺事와 附錄

卷下는 遺事와 附錄을 모은 것이다. 遺事에서 引用한 문란으로는 李珥의 「石潭日記」 李廷馨의 「東閣雜記」 作者未詳의 「記事」 李恒福의 手記, 安邦俊의 기록, 趙憲의 「重峰集」, 曹植의 南冥師友錄, 趙憲의 아들인 趙完堵의 手記, 朴世采의 師友錄, 承政院日記 등에서 베껴낸 것이다.

附錄은 土亭과 관계되는 高敬命, 趙憲의 詩 4篇이 있고 그밖에 土亭을 받들기 위하여 세운 花岩書院에 관한 諸文字, 書院賜額祭文, 李珥와 趙憲의 「祭土亭先生文」 李山海가 지은 「墓碣銘」 李觀命이 지은 「諡狀」 등을 附記한 것이다. 以上으로 李朝前期의 大學者인 土亭 李之菡을 研究하는 基本資料로서의 「土亭集」의 全貌가 소개되었다.

5. 附 記

筆者가 收藏한 「土亭集」은 開卷 첫장인 序에 「甲峯」 本文 첫장에 「金海世家」 「金守杭印」 「濟仲父」 등의 印記가 있어 이것이 本書가 刊行될 당시의 右議政이었던 金守杭의 手澤本이었음을 알 수 있다.

金守杭은 本書가 刊行되기 7년전인 肅宗 39년에 禮曹判書로 있으면서 李之菡의 贈爵賜諡를 받기 위하여 임금에게 建議한 바 있었으니 本書가 刊行되면서 곧 그에게 寄贈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